

## 치위생(학)과 학생의 성격 5요인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

김인자<sup>1</sup>, 송귀숙<sup>2</sup>, 손주리<sup>3\*</sup>

<sup>1</sup>여주대학교 치위생과, <sup>2</sup>해전대학교 치위생과, <sup>3</sup>전주비전대학교 치위생과

## Dental hygiene Students Five Personality Factors and the Relation with College Adaptation

In-Ja Kim<sup>1</sup>, Kwui-Sook Song<sup>2</sup>, Ju-Lee Son<sup>3\*</sup>

<sup>1</sup>Department of Dental Hygiene, Yeosu Institute of Technology

<sup>2</sup>Department of Dental Hygiene, Hyejeon College

<sup>3</sup>Department of Dental Hygiene, VISION College of Jeonju

**요약**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 학생 450명을 대상으로 성격 5요인과 대학생활 적응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이다. 자료수집은 2017년 06월 27일부터 08월 31일까지 진행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SPSS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대학생활 적응도는 2학년 학생들이 사회적 적응, 정서적 적응, 신체적 적응, 대학에 대한 애착 적응이 높았다. 성격특성과 대학생활 적응 상관성에서 신경증의 성격은 대학생활에 대한 적응도가 낮았으며,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의 성격이 대학생활에 대한 적응도가 높았다. 학교생활 적응도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특성 및 학년에 따른 성격특성이 대학생활 적응 정도에서 신경증적 성향은 부정적인 정서적 적응을 하였으며, 학년별 성격특성에서도 신경증적 성향의 1, 2, 3학년 학생은 부정적인 정서적 적응을 하였다. 연구결과 치위생(학)과 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성격의 특성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으며 신경증 성격을 지닌 학생들을 위한 학생들을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각각 성격에 맞는 구체적인 대학생활적응 프로그램 개발 및 성격특성에 맞는 연구가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sought to research five personality factors of 450 dental hygiene students and their ability to adapt to a college environment. Data were collected from June 27th~August 31st, 2017, and the one-way analysis of variance, confidence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arried out using the SPSS 23.0 program. The results show that sophomores have high social, emotional, physical, and attachment adaptation to college. In the correlation between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nd college life adaptation, students with neurotic personalities have low college adaptation, but those with extroversion, openness, sociability, and sincerity have high college adaptation. In the effects of personality characteristics on college adaptation and the college life adaptation level of each grade's personality characteristics, the neurotic tendency has negative emotional adaptation, and freshmen, sophomores, and juniors with neurotic personalities have negative emotional adaptation as well. These results indicate that it is necessary to comprehend various personality characteristics to enhance the college adaptation of students, to help students with a neurotic personality to adapt to their college life, to develop specific college adaptation programs for each personality type, and to conduct research according to personality characteristics.

**Keywords** : Neurotic, Five Personality Factor, Dental Hygiene, College Adaptation, Personality Characteristics

\*Corresponding Author : Ju-Lee Son(VISION College of Jeonju)

email: julee890716@naver.com

Received July 5, 2021

Revised July 23, 2021

Accepted August 5, 2021

Published August 31, 2021

## 1. 서론

대학생은 청소년기 시기였던 중, 고등학교와 달리 가정 또는 사회로부터 성인의 역할을 기대받고, 낯선 대학 생활환경과 다양한 자율적인 문화 및 개방적 문화를 추구하며 직업 및 진로 학업 다양한 사람들과의 대인관계 문제를 본인 스스로 결정함에 있어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1].

대학생활적응은 대학 내에서 학업, 대인관계, 정서적 측면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상태이며[2], 대학생활 적응은 앞으로 사회로 나아갈 성장의 원동력이 되어 사회생활 적응 및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3]. 대학생활적응의 정의를 개인 내적 적응, 환경 적응을 포함한 의미이며 심리적인 스트레스에 알맞게 대처하며 자신이 속한 대학 및 대인관계에 대한 만족감을 가지는 것이라고 하였다[2].

신입생 실태조사에 의하면 학업 및 진로 고민, 목표상실과 가치관 혼란, 자율적인 대학생활 부적응 순으로 대학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다[4]. 이러한 대학생활은 전공에 대한 흥미 저하 뿐만 아니라 중도 탈락율을 불러일으키며 졸업 후 비전공 직업 전환 및 이직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난다[3]. 특히 보건계열 학생들의 전공에 대한 전문성 및 서비스 제공 그리고 대인관계 형성에 있어서 대학생활의 적응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3]. 대학 입학 후 바로 진로가 설정되고 취업을 준비하는 치위생(학)과 학생들은 타 과에 비해 많은 양의 학업량과 임상 실습 및 국가고시 등 학업 부담으로 인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5]. 이러한 스트레스를 줄이지 못하게 되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것은 개인과 가족 그리고 학교나 사회적으로도 유능한 인재 발굴에 있어 어려움이 따른다[6]. 이러한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는 각 개인의 성격에 따른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7]. 성격은 개인을 특징짓는 행동 양식이며, 성격에 따라 대학 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성격 이론 중 5요인 성격이론은 신경증,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으로 성격의 요인 구조로 설명할 수 있으며, 학교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삶과 사회생활 등 개인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8,9]. 여기서 신경증이 높은 사람은 스트레스 및 부정적인 기분을 많이 받고, 외향성이 높은 사람은 사람과의 교제와 상호작용을 선호하며, 낮은 사람은 소극적 태도를 보인다. 개방성이 높은 사람은 많은 호기심과 다양성 및 변화를 선호하며 낮은 사람은 보수적인 태도를 보인다. 친화성이 높은 사

람은 협력적인 태도를 보이는 반면 낮은 사람은 자기중심적이다. 성실성이 높은 사람은 책임감 및 신뢰도가 높다[10-12]. 이처럼 다양한 개인의 성격의 특징에 따라 대학생활 적응력에 차이를 파악하여 대학생활 적응 방안을 제안한다면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성격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에 관한 연구는 다양하게 있었으나 간호학과, 임상병리학과 등 [13,14] 몇 개 학과에서만 이루어졌을 뿐 치위생(학)과에서 성격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치위생(학)과 재학 중인 학생들의 개인 성격유형 및 대학생활적응도를 근거로 하여 유형별 대학생활 적응능력을 파악하며,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효율적인 대학생활 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에 발판이 되고자 한다.

## 2. 연구대상 및 방법

###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W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WKIRB-201706-SB-035)을 받은 설문지로 2017년 06월 27일부터 08월 31일까지 설문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후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편의표본추출법에 의해 선택된 치위생(학)과 학생 4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회수된 설문지 446부 중 무응답 및 불성실한 설문지 7부를 제외하고 439부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인 439명 중 남자는 10명(2.3%), 여자는 429명(97.7%)이었고, 1학년 115명(26.2%), 2학년 110명(25.1%), 3학년 214명(48.7%)이었다.

### 2.2 연구도구

설문지는 일반적 특성에 관한 내용 3문항, 성격을 파악하기 위한 IPIP척도 50문항, 대학생활적응 검사를 위한 SACQ척도 25문항 총 7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성격 특성을 분류하기 위하여 Goldberg(1999)의 IPIP(International Personality Item Pool) 척도를 유태용, 이기범, Ashton(2004) [15]이 번안한 도구를 활용하였다. IPIP 척도는 개인의 성격을 신경증,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의 5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요인 당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총 50문항이다. 각 문항은 자신의 성격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그렇다(3점),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각 요인의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성격특성을 의미하였다. 성격특성의 각 요인별로 신뢰도 분석을 시행하여 신뢰도가 낮은 문항을 각 요인별로 1문항씩 제거하여 각 요인마다 9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최종 Cronbach's  $\alpha$ 는 신경증 0.843, 외향성 0.812, 개방성 0.716, 친화성 0.720, 성실성 0.764이었다.

대학생활적응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Baker와 Siryk(1984)가 개발한 대학생활척도(Student Adjustment to College Questionnaire: SACQ)를 근거로 이윤정(2000) [16]이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SACQ는 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 정서적 적응, 신체적 적응, 대학에 대한 애착 적응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요인 당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총 25문항이다. 각 문항은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그렇다(3점),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였다. 대학생활적응의 각 요인별로 신뢰도 분석을 시행하여 신뢰도가 낮은 문항을 각 요인별로 1문항씩 제거하여 각 요인마다 4문항을 사용하였고, 최종 Cronbach's  $\alpha$ 는 학업적 적응 0.732, 사회적 적응 0.536, 정서적 적응 0.644, 신체적 적응 0.543, 대학에 대한 애착 적응 0.696이었다.

### 2.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ver. 23.0(IBM Co., Armonk, NY,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통계적 유의수준( $\alpha$ )은 0.05로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성격특성 및 대학생활적응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라 성격특성 및 대학생활적응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성격특성과 대학생활적응도의 각 하위 요인별 신뢰도 분석을 시행하였다. 성격특성과 대학생활적응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대학생의 성격특성이 대학생활적응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학년별 성격특성과 대학생활적응

성격특성은 4점 만점에 신경증 2.68점, 외향성 2.65점, 개방성 2.52점, 친화성 2.80점, 성실성 2.63점으로 나타났으며 학년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대학생활적응도는 학업적 적응 2.37점, 사회적 적응 2.92점, 정서적 적응 2.55점, 신체적 적응 2.39점, 대학에 대한 애착적응 2.61점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적응, 정서적 적응, 신체적 적응, 대학에 대한 애착적응이 2학년이 1학년과 3학년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1).

Table 1. Each grade's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nd college adaptation

Unit : M $\pm$ SD

	Total <sup>†</sup>	1 <sup>st</sup> grader <sup>a</sup>	2 <sup>nd</sup> grader <sup>b</sup>	3 <sup>rd</sup> grader <sup>c</sup>	p <sup>*</sup>
Personality characteristics					
Neurotic	2.68 $\pm$ 0.50	2.60 $\pm$ 0.50	2.65 $\pm$ 0.53	2.73 $\pm$ 0.48	0.070
Extroversion	2.65 $\pm$ 0.41	2.60 $\pm$ 0.44	2.67 $\pm$ 0.41	2.66 $\pm$ 0.40	0.340
Openness	2.52 $\pm$ 0.34	2.51 $\pm$ 0.35	2.53 $\pm$ 0.32	2.50 $\pm$ 0.35	0.855
Sociability	2.80 $\pm$ 0.34	2.80 $\pm$ 0.34	2.80 $\pm$ 0.31	2.79 $\pm$ 0.35	0.959
Sincerity	2.63 $\pm$ 0.39	2.65 $\pm$ 0.37	2.65 $\pm$ 0.43	2.62 $\pm$ 0.38	0.727
College adaptation					
Academic adaptation	2.37 $\pm$ 0.54	2.33 $\pm$ 0.47	2.47 $\pm$ 0.59	2.33 $\pm$ 0.55	0.059
Social adaptation	2.92 $\pm$ 0.40	2.97 $\pm$ 0.38	3.03 $\pm$ 0.36	2.83 $\pm$ 0.41	<0.001 <sup>b,a,c</sup>
Emotional adaptation	2.55 $\pm$ 0.54	2.63 $\pm$ 0.53	2.68 $\pm$ 0.54	2.43 $\pm$ 0.53	<0.001 <sup>b,a,c</sup>
Physical adaptation	2.39 $\pm$ 0.47	2.41 $\pm$ 0.43	2.50 $\pm$ 0.48	2.32 $\pm$ 0.48	0.003 <sup>b,a,c</sup>
Attachment adaptation to college	2.61 $\pm$ 0.51	2.67 $\pm$ 0.49	2.74 $\pm$ 0.49	2.52 $\pm$ 0.52	0.001 <sup>b,a,c</sup>
Total	2.57 $\pm$ 0.37	2.60 $\pm$ 0.32	2.69 $\pm$ 0.37	2.49 $\pm$ 0.37	<0.001 <sup>b,a,c</sup>

<sup>†</sup>Descriptive statistics ANOVA(Scheffe's method)\*p<0.05

Table 2. Correlation between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nd college adaptation

	Academic adaptation	Social adaptation	Emotional adaptation	Physical adaptation	Attachment adaptation to college
Neurotic	-.328**	-.323**	-.601**	-.379**	-.374**
Extroversion	.204**	.321**	.166**	.083	.167**
Openness	.208**	.123*	.146**	.037	.160**
Sociability	.238**	.285**	.279**	.161**	.313**
Sincerity	.394**	.261**	.308**	.149**	.358**

\*\* The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level of 0.01.(two-sided).

\* The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level of 0.05.(two-sided).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Table 3. The effects of personality characteristics on college adaptation

	B	SE	$\beta$	t	p
<b>Neurotic</b>					
Academic adaptation	0.016	0.044	0.017	0.359	0.720
Social adaptation	-0.049	0.056	-0.039	-0.876	0.381
Emotional adaptation	-0.488	0.053	-0.532	-9.290	<0.001
Physical adaptation	-0.053	0.050	-0.050	-1.064	0.288
Attachment adaptation to college	-0.052	0.048	-0.054	-1.096	0.274
		R <sup>2</sup> =0.366	Adjusted R <sup>2</sup> =0.358	F=49.908	p<0.001
<b>Extroversion</b>					
Academic adaptation	0.091	0.043	0.120	2.101	0.036
Social adaptation	0.307	0.055	0.296	5.634	<0.001
Emotional adaptation	-0.025	0.051	-0.034	-0.495	0.621
Physical adaptation	-0.027	0.049	-0.030	-0.542	0.588
Attachment adaptation to college	0.015	0.047	0.019	0.328	0.743
		R <sup>2</sup> =0.114	Adjusted R <sup>2</sup> =0.104	F=11.189	p<0.001
<b>Openness</b>					
Academic adaptation	0.108	0.037	0.171	2.909	0.004
Social adaptation	0.032	0.047	0.037	0.691	0.490
Emotional adaptation	0.037	0.044	0.059	0.847	0.397
Physical adaptation	-0.068	0.042	-0.094	-1.635	0.103
Attachment adaptation to college	0.037	0.040	0.056	0.937	0.349
		R <sup>2</sup> =0.054	Adjusted R <sup>2</sup> =0.044	F=4.984	p<0.001
<b>Sociability</b>					
Academic adaptation	0.029	0.035	0.046	0.825	0.410
Social adaptation	0.139	0.044	0.162	3.129	0.002
Emotional adaptation	0.048	0.042	0.078	1.161	0.246
Physical adaptation	-0.007	0.040	-0.009	-0.172	0.863
Attachment adaptation to college	0.123	0.038	0.186	3.241	0.001
		R <sup>2</sup> =0.135	Adjusted R <sup>2</sup> =0.125	F=13.569	p<0.001
<b>Sincerity</b>					
Academic adaptation	0.193	0.039	0.266	4.913	<0.001
Social adaptation	0.086	0.050	0.087	1.738	0.083
Emotional adaptation	0.054	0.047	0.075	1.166	0.244
Physical adaptation	-0.069	0.044	-0.082	-1.541	0.124
Attachment adaptation to college	0.133	0.042	0.173	3.139	0.002
		R <sup>2</sup> =0.200	Adjusted R <sup>2</sup> =0.191	F=21.702	p<0.001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p<0.05



Table 4. The effects of personality characteristics on college adaptation of each grade (continued)

	1 <sup>st</sup> grader					2 <sup>nd</sup> grader					3 <sup>rd</sup> grader				
	B	SE	$\beta$	t	p	B	SE	$\beta$	t	p	B	SE	$\beta$	t	p
<b>Sociability</b>															
Academic adaptation	-0.085	0.074	-0.117	-1.152	0.252	0.115	0.057	0.223	2.021	0.046	0.016	0.058	0.025	0.282	0.778
Social adaptation	0.205	0.084	0.229	2.452	0.016	-0.011	0.092	-0.013	-0.122	0.903	0.176	0.067	0.201	2.638	0.009
Emotional adaptation	0.091	0.081	0.140	1.120	0.265	0.010	0.075	0.018	0.132	0.895	0.062	0.064	0.094	0.968	0.334
Physical adaptation	0.005	0.080	0.006	0.063	0.950	0.070	0.073	0.109	0.951	0.344	-0.049	0.059	-0.067	-0.840	0.402
Attachment adaptation to college	0.221	0.080	0.315	2.781	0.006	0.107	0.072	0.169	1.485	0.141	0.105	0.054	0.155	1.927	0.055
				1st grader: R <sup>2</sup> =0.243			Adjusted R <sup>2</sup> =0.208			F=6.995	p<0.001				
				2nd grader: R <sup>2</sup> =0.170			Adjusted R <sup>2</sup> =0.130			F=4.262	p=0.001				
				3rd grader: R <sup>2</sup> =0.126			Adjusted R <sup>2</sup> =0.105			F=5.985	p<0.001				
<b>Sincerity</b>															
Academic adaptation	0.291	0.080	0.359	3.653	<0.001	0.265	0.072	0.363	3.680	<0.001	0.108	0.063	0.155	1.728	0.086
Social adaptation	0.164	0.090	0.166	1.828	0.070	0.044	0.115	0.037	0.380	0.704	0.101	0.072	0.106	1.406	0.161
Emotional adaptation	0.018	0.087	0.025	0.210	0.834	0.158	0.095	0.199	1.663	0.099	0.037	0.069	0.051	0.526	0.599
Physical adaptation	-0.016	0.085	-0.018	-0.183	0.855	0.011	0.092	0.012	0.116	0.908	-0.119	0.064	-0.148	-1.875	0.062
Attachment adaptation to college	0.136	0.085	0.174	1.589	0.115	0.087	0.090	0.098	0.959	0.340	0.145	0.059	0.198	2.474	0.014
				1st grader: R <sup>2</sup> =0.290			Adjusted R <sup>2</sup> =0.257			F= 8.884	p<0.001				
				2nd grader: R <sup>2</sup> =0.337			Adjusted R <sup>2</sup> =0.305			F=10.557	p<0.001				
				3rd grader: R <sup>2</sup> =0.137			Adjusted R <sup>2</sup> =0.117			F= 6.622	p<0.001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p<0.05															

### 3.2 성격특성과 대학생활적응의 상관성

신경증의 성격은 학업적 적응(r=-.328), 사회적 적응(-.323), 정서적 적응(-.601), 신체적 적응(-.379), 대학 애착 적응(-.374)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외향성의 성격은 학업적 적응(.204), 사회적 적응(.321), 정서적 적응(.166), 대학애착 적응(.167)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의 성격은 대학생활적응도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신경증의 성격을 가진 학생은 대학생활에 대한 적응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의 성격이 높은 학생은 대학생활에 대한 적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 3.3 성격특성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활적응도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대학생활적응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다.

신경증은 정서적 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p<0.001), 모형설명력은 36.6%로 나타났다. 외향성은 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p<0.05, p<0.001), 모형설명력은 11.4%로 나타났다. 개방성은 학업적 적응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p<0.001), 모형설명력은 5.4%로 나타났다. 친화성은 사회적 적응, 대학에 대한 애착 적응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p<0.001), 모형설명력은 12.5%로 나타났다. 성실성은 학업적 적응, 대학에 대한 애착 적응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p<0.001, p<0.05) 모형설명력은 20%로 나타났다(Table 3).

### 3.4 학년에 따른 성격특성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활적응도에 영향을 미치는 학년에 따른 성격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대학생활적응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다.

신경증은 1, 2, 3학년 모두 정서적 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p<0.001), 모형설명력은 1학년 49.8%, 2

학년 39.7%, 3학년 31.1%로 나타났다. 외향성은 1, 2, 3학년 모두 사회적 적응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p < 0.001$ ,  $p < 0.05$ ), 모형설명력은 1학년 17.1%, 2학년 18.3%, 3학년 10.9%로 나타났다. 개방성은 1, 2학년에서 학업적 적응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p < 0.05$ ), 모형설명력은 1학년 11.7%, 2학년 12.0%로 나타났다. 친화성은 1학년은 사회적 적응과 대학에 대한 애착 적응에서, 2학년은 학업적 적응에서, 3학년은 사회적 적응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p < 0.05$ ), 모형설명력은 1학년 24.3%, 2학년 17.0%, 3학년 12.6%로 나타났다. 성실성은 1학년과 2학년은 학업적 적응에서, 3학년은 대학에 대한 애착 적응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p < 0.001$ ,  $p < 0.05$ ) 모형설명력은 1학년 29.0%, 2학년 33.7%, 3학년 13.7%로 나타났다 (Table 4).

#### 4. 고찰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성격 5요인과 대학생활적응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성격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요인으로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 학년별 성격특성 중 친화성이 2.8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이 등[14]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며 친화성이 높은 학생들일수록 대학생활 적응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대학생활 적응도는 2학년 학생들이 사회적 적응, 정서적 적응, 신체적 적응, 대학에 대한 애착 적응이 높았다. 이는 신[17]의 연구결과와 반대되는 연구결과를 나타냈다. 각각 학교별 특성에 따른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생각되며 2학년 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이 높게 나타난 이유는 1학년 3학년 학생들보다 학교에서 지내는 시간적인 비율과 임상실습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 값이 나온 것으로 사료된다.

성격특성과 대학생활적응의 상관성에서 외향성 개방성 성격을 가진 학생들의 신체적 적응을 제외한 나머지에서 대학 생활에 적응도가 높았고 가장 친화성 및 성실성 성격을 가진 학생이 대학생활의 적응도가 가장 높았다 다만 신경증의 성격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이 등[14]의 학과만족도의 결과와 유사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로 보아 신경증 성격을 가진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학생활 적응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또한 친화성 및 성실성의 성격특성을 더욱더 향상 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

그램을 접목하여 대학적응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학교생활 적응도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특성 및 학년에 따른 성격특성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업적 적응은 대학에서 요구 학업적 요구에 얼마나 잘 적응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것이며[18], 사회적 적응은 대학에서 도움을 주는 사회적 관계 및 조직의 형성, 관계 형성 능력, 학교생활 구성원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포함되며[18], 정서적 적응은 상호관계, 삶의 방향, 자기 가치 등으로 개인의 인성 형성에 핵심이 되는 본인의 본질, 위치, 역할 등 본인 스스로 탐색 과정을 통한 적응을 말하며, 애착 정도와 대학 만족도는 학업 목표에 대한 몰입을 의미한다[19]. 학교생활 적응도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특성 및 학년에 따른 성격특성이 대학생활적응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경증적 성향은 부정적인 정서적 적응하였으며 학년별 성격특성에서도 신경증적 성향의 1, 2, 3학년 학생은 부정적인 정서적 적응하였다. 선행연구에서도 신경증적 성향은 회피목표를 설정하며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경향을 보이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9,20].

신경증적 성향의 학생들은 모든 학년에 대한 부적응적인 정서적 적응을 하였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정서조절이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신경증이 높을수록 우울과 스트레스에 취약하며 부정적인 삶을 지각하기 쉽다[9]. 신[21]은 대학 생활 부적응 상담 시 스트레스 요인 감소 및 대학 생활 스트레스로 인한 감소된 자아 탄력성 사회적 지지 등 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상담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학교에서는 신경증적 학생들에 대한 성격을 상세히 이해하고 학생 지도 및 상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외향적 성향은 긍정적인 사회적 적응을, 개방적 성향은 긍정적인 학업적 적응을, 친화적 성향은 긍정적인 사회적 적응과 대학에 대한 애착 적응을, 성실한 성향은 긍정적인 학업적 적응과 대학에 대한 애착 적응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성격특성 또한 외향적 성향의 1, 2, 3학년 학생은 긍정적인 사회적 적응을, 개방적 성향의 1, 2학년 학생은 긍정적인 학업적 적응을, 친화적 성향의 1학년 학생은 긍정적인 사회적 적응과 대학에 대한 애착 적응을 하였고, 2학년 학생은 긍정적인 학업적 적응을 하였으며, 3학년 학생은 긍정적인 사회적 적응을 하였다. 성실한 성향의 1, 2학년 학생은 긍정적인 학업적 적응을 하였고, 3학년 학생은 긍정적인 대학에 대한 애착

적응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성실성이 높을수록 목표지향적이며[20], 성실성과 친화성이 높을수록 친사회적 경향을 보이며[22], 성실성뿐만 아니라 외향성 개방성 또한 높은 수준의 적응력을 보인다는 선행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 값을 나타냈다[23]. 이처럼 성실성 개방성 외향성 친화성 성격을 가진 학생들은 대학생활 적응에 있어 각각의 성격특성이 높은 기여한다고 사료된다. 성실성, 친화성, 외향성, 개방성 성향 학생들의 성격성향을 더욱더 연구하여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 및 졸업 후 임상에 취직했을 때 근무 만족도 및 이직도를 줄여나가기 위한 교수-학습과정 수업방법 개발함에 있어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연구대상이 연구대상을 편의표본 추출법으로 선정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객관화 하는데 한계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5요인 성격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 대한 대표성을 지닌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5. 결론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서 치위생(학)과 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성격의 특성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신경성 성격을 지닌 학생들을 위한 학생들을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각각 성격에 맞는 구체적인 대학생활적응 프로그램 개발 및 성격특성에 맞는 장단점을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교수-학습과정에서 수업방법을 개발하여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력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 References

- [1] M. C. Kim, D. H. Kim, "A survey report on the actual conditions of students at Jeju national university", *Journal of student Guidance*, Vol. 30, no. 1, pp.89-168, 2009.
- [2] R. W. Baker, B. Siryk, "Measuring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 31, No. 2, pp. 179-189, 1984.  
DOI: <https://doi.org/10.1037/0022-0167.31.2.179>
- [3] M. R Lee, H. S Jeon, "Personal types, Ego-resilience, and College Adaptation in Nursing and Health Care related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6, No.12, pp.8861-8869, Dec. 2015.  
DOI: <https://doi.org/10.5762/KAIS.2015.16.12.8861>
- [4] G. S. Lee, S. J. Do, H. A. Song, "Mediation effects of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on the relation between the influence of personality trait and university adjustment of freshmen", *Korea journal of youth studies*, Vol.23, No.3, pp.53-73, Mar. 2016.  
DOI: <https://doi.org/10.21509/kjys.2016.03.23.3.53>
- [5] S. Y. Lee, Y. J. kangaroo pocket. "Influence of instructor Trust on Learning Flow and Academic Achievement in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Vol.16, No.5, pp.687-693, Oct. 2016.  
DOI : <https://doi.org/10.13065/jksdh.2016.16.05.687>
- [6] H. Y. Jung, "The Convergence Influence of Life Stress, Depression and Ego Resiliency on College Life Adapta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4, No.7, pp.25-30, Jul. 2016.  
DOI: <https://doi.org/10.14400/JDC.2016.14.7.259>
- [7] C. S. Kim, S. H. Cheon, M. S. Ch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sonality types and satisfaction of education in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Vol.14, No.6, pp.943-949, Dec. 2014.  
DOI : <http://dx.doi.org/10.13065/jksdh.2014.14.06.943>
- [8] R. R. McCrae, P. T. Costa, "The five-factor theory of personality, In O. P. John, R. W. Robin, L. A. Pervin(Eds.), "Handbook of Personality: Theory and research(3rd ed.)", pp.159-181, New York, NY: Guilford Press, 2008.
- [9] R. R. McCrae, P. T. Costa, "Four ways five factors are basic",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13, No.6, pp.653-665, Jun. 1992.  
DOI: [https://doi.org/10.1016/0191-8869\(92\)90236-1](https://doi.org/10.1016/0191-8869(92)90236-1)
- [10] P. T. Costa, R. R. McCrae, "Normal personality assessment in clinical practice: The NEO personality inventory", *Psychological Assessment*, Vol.4, No.1, pp.5-13, 1992.  
DOI: <http://dx.doi.org/10.1037/1040-3590.4.1.5>
- [11] P. T. Costa, R. R. McCrae, The five-factor model, five-factor theory, and interpersonal psychology, In L. M. Horowitz, S. Strack (Eds.), "Handbook of interpersonal psychology: Theory, research, assessment, and therapeutic interventions", pp.91-104, Hoboken, NJ: John Wiley & Sons Inc, 2011.
- [12] Goldberg, L. R., "An alternative "description of personality": The big-five factor struct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9, No.6, pp.1216-1229, 1990.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59.6.1216>
- [13] Y. J Oh, "Predictors of College Life Adjustment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5, No. 7, pp.307-317, Jul. 2017.  
DOI: <https://doi.org/10.14400/JDC.2017.15.7.307>

- [14] G. R. Yi, J. S. Park, "An Effect of Big Five Personality Traits of Clinical Laboratory Science Students on Their Academic Satisfaction: Mediated Effect of Career Preparatio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1, No.8, pp.447-454, Aug. 2020.  
DOI: <https://doi.org/10.5762/KAIS.2020.21.8.447>
- [15] T. Y. Yoo, C. O. Oh, T. K. Yoon,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HEXACO Personality Inventory",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Vol.18, No.3, pp.61-75, Nov. 2004.
- [16] Y. J. Lee, The non-residential students' adaptation to college life and career plans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2000.
- [17] S. H. Shin, "A Study on Academic Achievement and College life adaptation of dental hygiene students in S Area"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ol.10, No.12, pp.119-125, Dec. 2020.  
DOI: <https://doi.org/10.22156/CS4SMB.2020.10.12.119>
- [18] E. A. Kim, Developing a Prediction Model regarding Adjustment of Nursing Students to College Life,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honnam National, Kwangju, 2011.
- [19] S. J. Lee.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of the Autonomy, Relatedness, Competence, Academic achievement, Emotional-adjustment and Subjective well-being among University",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25, No.4, pp.903-926, Dec. 2011.
- [20] K. O. McCabe, N. W. van Yperen, A. J. Elliot, M Verbraak, "Big five personality profiles of context-specific achievement goal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Vol.47, No.6, pp.698-707, Dec. 2013.  
DOI: <https://doi.org/10.1016/j.jrp.2013.06.003>
- [21] J. Y. Shin, "The Mediating Effects of ego-resilience and Coping Strategy, Social Support in the relation between Life Stress and on Adjustment in College Life", (Ph.D dissertation),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2014.
- [22] A. Courbalay, T. Deroche, E. Prigent, A. Chalabaev, M. A. Amorim, "Big five personality traits contribute to prosocial responses to others' pai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78, pp.94-99, May. 2015.  
DOI: <https://doi.org/10.1016/j.paid.2015.01.038>
- [23] M. S. Lee, H. S Choi, E. M Yeon, "Relationships Among the Big Five Personality Traits, Psychological Well-being, and College Adaptation of Pre-service Teacher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0, No.3 pp.71-81, Mar. 2019.  
DOI: <https://doi.org/10.5762/KAIS.2019.20.3.71>

김 인 자(In-Ja Kim)

[정회원]



- 2014년 8월 : 원광대학교 보건환경대학원 보건학과 (보건학석사)
- 2017년 8월 : 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치의학과 (치의학박사)
- 2019년 9월 ~ 현재 : 여주대학교 치위생과 교수

<관심분야>

치위생학

송 귀 숙(Kwui-Sook Song)

[정회원]



- 2003년 8월 : 원광대학교 보건환경대학원 보건학과 (보건학석사)
- 2009년 2월 : 조선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 (보건학박사)
- 2006년 3월 ~ 현재 : 혜전대학교 치위생과 교수

<관심분야>

치위생학, 보건학, 치의학

손 주 리(Ju-Lee Son)

[정회원]



- 2015년 2월 : 원광대학교 보건보완대학원 보건학과 (보건학석사)
- 2019년 2월 : 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치과대학 (치의학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전주비전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치위생과 강사
- 2019년 9월 ~ 현재 : 혜전대학교 치위생과 강사

<관심분야>

치위생학